

Fitch, 사우디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

- **Fitch Ratings**는 사우디아라비아의 Sovereign Foreign/Local Currency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A+로 상향조정하였음.
- Fitch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으로서 튼튼한 재정을 견지하고 있으며, 작년 WTO 가입 이후 금융서비스 분야 등 경제개방을 진행하는 한편,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경제구조조정 및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.
- 사우디의 2006년도 재정 흑자규모는 극히 보수적인 기준(배럴당 원유가 38달러 기준)으로 550억 리알(147억 달러)로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년도 규모인 570억 리알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금년 중 석유收入 또한 크게 증가한 2,0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(평균유가 62.5달러, 일산 940만 배럴 기준), 재정흑자의 2/3 이상을 국내채무상환에 충당할 계획임.
- 한편, **Standard & Poor's**는 금년 4월 사우디의 Long Term Foreign Currency 신용등급을 A에서 A+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**Moody's** 또한 작년 11월 사우디의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음.

(자료제공: 두바이 사무소)

문의: 전문연구원 차경진 (☎3779-6686)

E-mail : chakj@koreaexim.go.kr